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

VIP REPORT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238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2072-624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사교육 시장의 현황과 대책

-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

Executive Summary	i
1. 문제제기	1
2. 국내 사교육 실태와 시장 규모	5
3. ‘방과후학교’의 참여 실태 및 사교육 대체 가능성	11
4. 정책적 과제	15
■ HRI 경제 지표	17

1.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은 소비위축과 저축률 감소 등 가계경제를 위축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부로 인한 학벌 및 소득세습 등 사회적 통합을 지연시키는 국가적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0년의 사교육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았으며,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대체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국내 사교육 실태와 시장 규모

첫째,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의 사교육 참가율은 95.5%였다. 사교육 과열 이유로는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 공교육 관련 문제가 60.9%였고, 부모들의 경쟁심리(17.0%),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14.8%) 등 부모로 인해 발생한다는 의견이 31.8%였다.

둘째, 사교육에 집중하는 가구는 하위 소득층보다 상위 소득층으로 파악된다. 평균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409,000원이었지만 6,000만원 이상 상위 소득가구는 619,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3,600만원 이하 하위 소득가구의 253,000원에 비해 2.5배 많았다. 상위 소득가구가 하위 소득가구에 비해 소득이 1.7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2010년 사교육시장의 추정규모는 약 40조 4,313 억원으로 2007년 33조 4,968 억원에 비해 20.7%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3.80%로 2007년(3.94%)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교육 지하경제 규모는 약 15조 507 억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교육 시장규모 증가율이 지하 경제규모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현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로 사교육 지하경제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방과후학교'의 참여 실태 및 사교육 대체 가능성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방과후학교' 도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하위 소득층에서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초중고생의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43.2%였다. 3천6백만 원 이하 하위 소득가구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49.2%)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도움(42.6%)에서 중·상위가구보다 높았다.

하지만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비해 열등재로 인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사교육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의 대체수단(38.9%)보다는 '또다른 사교육'(61.1%)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비용 대비 성적향상에서는 사교육(86.6%)이 '방과후학교'(13.4%)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정책적 과제

정부는 우선 공교육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수한 교사를 육성하고, 인센티브 도입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초중고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소규모 그룹 운영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 불신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1. 문제제기

○ 사교육 과열과 정부 대책

-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열은 가계경제에서 소비위축과 저축률 감소를,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 위화감 조성과 부의 세습 등을 유발시키는 국가적 문제임
- 가계측면에서 지나친 사교육비는 여가생활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저축 등 가장의 은퇴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킴
- 사회적으로는 소득격차로 인한 사교육 격차는 학벌 및 소득격차를 반복시킴으로써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어렵게 함
- 이에 정부는 2009년 6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함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10년 2월부터 대통령은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관하는 등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위주 교육관행 개혁 등의 교육 개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음

<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공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자율화 확대 · 교과 교실제 도입 · 교원능력개발 평가제 도입 ·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 영어교육의 질제고 및 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선진형 입학전형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선진화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 과학올림피아드 및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 개선 · 기출문제 공개로 내신 사교육 경감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없는 학교 프로젝트 추진 · ‘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 · EBS 수능강의 서비스 품질 제고
학원 운영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단축 운영토록 유도 · 온라인 교육기관의 수강료 제한 ·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 불법·편법 운영학원의 효율적 관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문화적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책무성 강화 · 학부모 인식 전환 및 정보제공 강화

자료: 사교육비 경감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6월 3일.

사교육 시장의 연장과 대책

-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학원수강, 그룹 및 개인과외의 대체수단으로서 2004년에 도입한 정책임
- 2009년 9월 현재 초중고의 99.9%가 참가해 교과프로그램의 경우, 현직강사와 외부강사의 비율이 87.5:12.5, 특기·적성프로그램은 24.1:75.9로 운영 중임

< 2009년 '방과후학교' 현황 >

구 분	교과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초등 돌봄 교실	계
초등학교	37,615	97,748	4,524	135,363
중학교	87,793	22,494		110,287
고등학교	112,744	12,023		124,767
계	수(개)	238,152	132,265	374,941
	비율(%)	63.5	35.3	100

자료: 2009년 '방과후학교' 현황분석,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9월.

○ 조사의 목적

- 본고에서는 첫째,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2010년 '사교육 실태와 시장규모'를 조사함
 - 2007년 본원은 '사교육 실태 조사¹⁾'를 통해 사교육시장 및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바 있음
 - 3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사교육 실태 및 시장규모에 대해 2007년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의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둘째,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실태와 사교육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고자 함
 - '방과후학교' 실태에서는 초중고생의 참여율, 프로그램, 성적향상 정도, 사교육비 경감효과 등이 포함되었음
 - 특히, 사교육에 대한 '방과후학교'의 대체가능성과 비용 대비 효과 등 경쟁력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임

1) 현대경제연구원(2007.4.27), "私教育,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와 시장규모추정", 「한국경제주평」.

○ 사교육 조사 개요

- (조사 설계) 전국의 624세대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와 '방과후학교'의 대체 효과에 관한 전화조사를 실시함

- 서울 및 신도시, 6대 광역시, 9개도에 대해 무작위 할당 표본추출법을 이용, 2010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 간 조사함
- 표본추출에 따른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2%이었음
- 전국, 624가구의 자녀별 사교육 현황을 모두 조사하였기 때문에 사교육비용 추정에는 가구 수가 아닌 응답 자녀수인 총 1,158명이 이용되었음

< 전화 설문 조사 Sampling >

(단위: 명)

지역	서울	고양	분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목표 수	100	30	30	30	30	30	30	30	30	610
응답 수	102	29	29	31	30	30	33	30	30	624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목표 수	30	30	30	30	30	30	30	30	30	
응답 수	35	30	31	30	30	30	35	29	30	

< 재학생별 표본 수 >

(단위: 명, %)

구분		전체	지역		
			서울/신도시	6대 광역시	9개시도
응답자 수(명)		1,158	276	336	546
재학 학교	유치원	17.9%	13.8%	17.6%	20.1%
	초등학교	40.6%	40.6%	41.4%	40.1%
	중학교	22.6%	21.4%	23.2%	22.9%
	고등학교	18.9%	24.3%	17.9%	16.8%

- (응답자 특성) 가구별 연소득에서는 3,600~6,000만 원 미만이 46.3%로 가장 많았고, 6,000만 원 이상 가구가 전체 응답 가구 중 21.7%였음

- 연소득의 상중하를 구분하기 위해 응답자를 3분위로 나누어 최소 3,600만원 미만, 3,600~6,000만원 미만, 6,000만 원 이상으로 가구 수를 분리해 분석함
- 직업에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직장인이 4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25.3%), 공무원(13.3%)의 순이었음

< 응답자 특성 >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중
응답자 수(명)	624	100.0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32.0
	3,600~6,000만 원 미만	46.3
	6,000만 원 이상	21.7
가장의 직업	대기업 직장인	15.1
	중소기업 직장인	34.5
	공무원	13.3
	전문직	5.5
	자영업	25.3
	사업	5.0
	주부 등 기타	1.2
학력	중졸이하	0.7
	고졸	28.5
	대졸	57.6
	대학원졸	13.3
생활비 수입 주체	아버지	56.3
	어머니	1.6
	맞벌이	41.8
	경제활동 안함	0.3

2. 국내 사교육 실태와 시장 규모

○ 유아를 포함한 초중고생중 95.5%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이유로는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 공교육 관련이 60.9%에 달함

- (사교육 참여율)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가율은 95.5%로 매우 높음
 - 초등학생들이 98.1%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학교로 올라갈수록 약간씩 감소함

< 사교육 참여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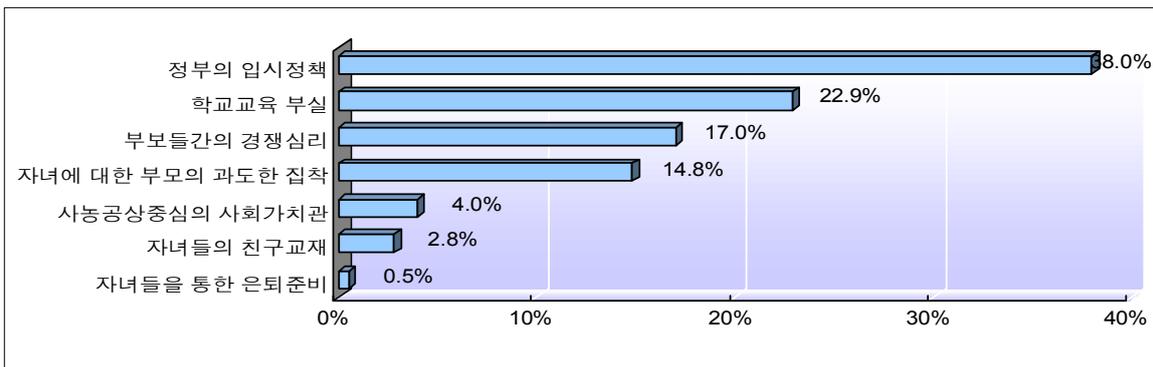
	전체	재학학교				연소득		
		유아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학생 수	1,158명	207명	470명	262명	219명	368명	539명	244명
참여	95.5%	90.3%	98.1%	96.9%	93.2%	93.5%	96.7%	95.9%
불참	4.5%	9.7%	1.9%	3.1%	6.8%	6.5%	3.3%	4.1%

주 1: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에는 유치원이 포함됨

- (사교육 실시 이유) '정부의 입시정책'(38.0%), '학교교육 부실'(22.9%) 등 공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응답이 60.9%로 가장 많았음

- 공교육 정책이나 자녀 자체의 문제와 별도로 '부모들 간의 경쟁심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집착' 등 부모로 인해 발생한다는 의견도 31.8%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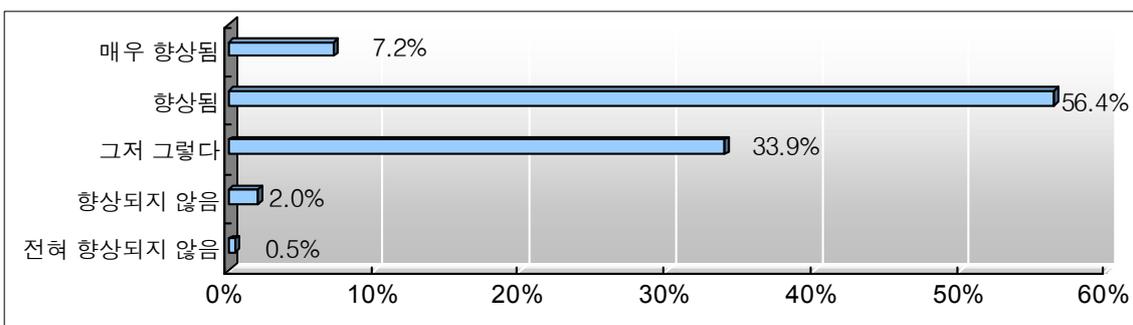
< 사교육 참여 이유 >



- (성적 향상) 응답자 중 63.6%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 사교육 효과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5%로 매우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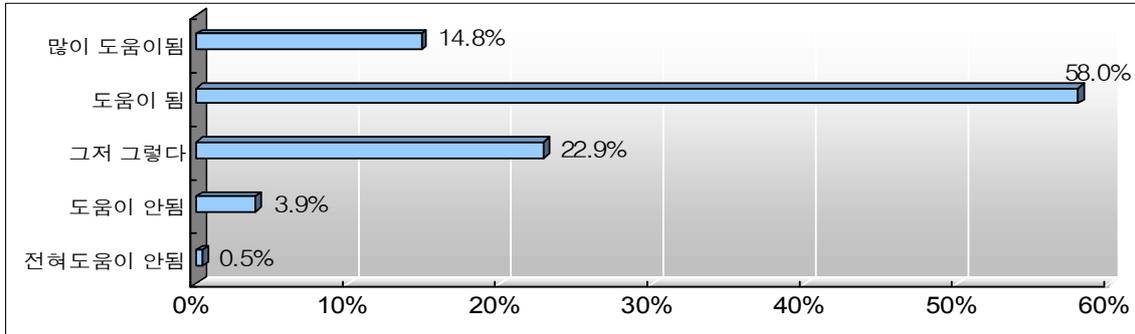
< 사교육 효과 >



- (대학진학) 사교육이 좋은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2.8%로 높음

-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72.8%)은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의견(63.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국 사교육은 자녀들의 좋은 대학 입학에 위한 부모들의 투자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학진학과 사교육 >



- (사교육 유형) 학원(68.4%)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36.5%), 그리고 학습지(28.4%)의 순이었음
- 본고에서는 학교 공교육 이후에 개인이 교육을 선택하여 공교육 이외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를 사교육의 한 종류로 포함해 조사하였음
- 초중생은 일반 사설학원 비중이 83.5% 이상으로 다른 사교육에 비해 격차가 크지만, 고등학생은 '방과후학교'와 사설학원 간 차이가 5%p 수준으로 낮았음
-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학습지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 사설학원과 개인과의 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학생별 사교육 종류 >

구 분	전체 (중복)	재학 학교				연소득		
		유아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	1,907명	280명	873명	409명	345명	550명	929명	419명
일반사설학원	68.4%	18.6%	83.5%	84.2%	60.3%	56.3%	73.9%	72.6%
방과 후 학교	36.5%	4.8%	45.1%	29.6%	54.9%	39.7%	34.3%	37.2%
학 습 지	28.4%	37.8%	42.1%	15.0%	5.4%	32.4%	28.9%	22.2%
개 인 과 외	11.4%	3.2%	7.4%	17.0%	21.1%	1.7%	12.5%	23.5%
그 룹 과 외	5.2%	-	5.9%	5.9%	7.8%	6.7%	4.8%	4.3%
온라인 통신	8.0%	0.5%	5.2%	9.5%	19.6%	5.5%	9.8%	8.1%
유 치 원	14.3%	84.0%	-	-	-	18.1%	13.6%	10.7%
해 외 연 수	0.2%	-	0.2%	0.4%	-	0.0%	0.2%	0.4%

○ 사교육에 집중하는 가구는 하위 소득층보다 상위 소득층으로 파악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월 409,000원을 지출하고 있었음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구는 학생 1인당 253,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6,000만 원 이상 가구는 619,000원으로 2.5배 정도 많음
- 상위소득가구가 하위소득가구에 비해 소득이 1.7배 정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본 조사 결과가 2009년 통계청의 사교육비조사 보고서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10,000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 ⇒ 통계청 조사의 경우 초중고 학생대상으로 수강료와 교재비만을 조사함
 - ⇒ 반면, 본 조사는 6~7세 유아를 포함하였고, 비용에서 '방과후학교' 비용과 수강료, 교재비와 더불어 학용품, 급식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했기 때문임

< 1인당 월 사교육비 현황 >

구 분	전체	재학 학교				연소득			
		유아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명)	1,106	189	461	253	203	344	522	233	
평균 지출액(천원)	409	385	336	448	546	253	417	619	
월지출 금액별 분포 (%)	~ 20만원	29.6	36.0	35.8	15.0	27.6	48.0	24.3	15.0
	21 ~ 40만원	37.3	39.2	40.6	44.7	19.2	38.7	39.7	28.8
	41 ~ 60만원	19.5	14.8	16.1	24.5	25.6	9.9	22.6	27.5
	61 ~ 80만원	5.6	4.8	3.5	5.9	10.8	2.9	6.3	7.7
	81 ~ 100만원	5.0	2.6	2.8	6.3	10.3	0.6	5.4	10.7
	100 ~	3.0	2.6	1.3	3.6	6.4	0.0	1.7	10.3

-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19.4%로 2007년 19.2%와 비슷한 수준임

- 2010년 가구당 사교육비는 72만 원으로 2007년 조사의 64.6만원에 비해 8.6% 증가했지만, 3년간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평균 3.4%)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수준임

<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 >

구 분	2007년	2010년			
	전체	전체	~3.6천만 원	3.6~6천만원	6천만 원~
응답자 수(명)	979	620	197	286	135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64.6	72.0	45.7	74.1	106.5
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19.2	19.4	20.7	20.1	16.1

- (지불방법) 현금 지급률은 56.0%였고, 현금영수증 미수령률은 67.0%에 이룸
 - 2007년 대비 사교육비의 현금 지급률은 14.0%p 감소하였으나 지하경제를 형성하는 현금영수증 미수령률은 4.1%p정도 상승함
 - 현금지급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 및 신도시(49.0%) 보다 6대 광역시(60.1%)와 9개 지방 거주 가구(57.2%)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사교육비 지불 방법과 영수증 수령여부 >

구 분		전 체		지역		
		2010	2007	서울/신도시	6대 광역시	9개 도
지불 방법	응답자 수	616명	1,011명	157명	183명	276명
	현금	56.0%	70.0%	49.0%	60.1%	57.2%
	지로송금	19.8%	15.7%	12.7%	24.0%	24.6%
	카드	24.8%	14.2%	38.2%	15.8%	17.8%
현금납부 응답자 중 영수증 수령 여부	응답자 수	345명	711명	77명	303명	246명
	미수령	67.0%	62.9%	84.4%	68.2%	57.6%
	수령	33.0%	37.1%	15.6%	31.8%	42.4%

- (사교육 부담 및 비용 마련) 응답자의 76.9%가 사교육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14.3%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은 77.2%~90.0%임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하위 소득가구의 경우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10가구 중 2가구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응답함

< 사교육비 부담여부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한 부업실시 여부 >

구 분	전체	지역			연소득			
		서울/신도시	6대/광역시	9개 도	~3.6천만 원	3.6~6천만 원	6천만 원	
부담률	응답자 수	617명	157명	183명	277명	196명	284명	133명
	부담 유	76.9%	72.0%	76.5%	79.8%	90.0%	79.5%	77.2%
부업유무	응답자 수	615명	156명	182명	277명	196명	284명	133명
	부업 무	85.7%	86.5%	84.6%	85.9%	77.6%	87.3%	94.0%
	부업 유	14.3%	13.5%	15.4%	14.1%	22.4%	12.7%	6.0%

- (희생 소비 항목)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등 삶의 질을 희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85.0%에 달함
 - 사교육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지출항목은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하위 소득가구일수록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의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소득가구는 레저/문화생활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높았음

<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을 경우 대체소비 항목 >

구 분	전체	연 소득		
		~3.6천만 원	3.6~6천만 원	6천 만 원~
응답자 수	620명	198명	287명	133명
노후대비(저축, 재테크 등)	45.8%	35.9%	51.2%	48.9%
레저/문화생활	28.1%	18.7%	31.0%	35.3%
건강관리	11.1%	18.2%	8.0%	7.5%
주거비	9.8%	17.7%	6.3%	6.0%
식품비	3.2%	6.1%	2.4%	0.8%
의료비	1.9%	3.5%	1.0%	1.5%

사교육 시장의 연장과 대책

○ 2010년 사교육 시장 추정규모는 2007년과 비교 시, 20.7%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에서는 비슷한 수준임

- (시장 추정규모) 약 40조 4,313억 원으로, 2007년(33조 4,968억 원)과 비교해 증가하였으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3.80%로 2007년(3.95%)과 비슷함

- 유아를 제외한 경우에도, 추정 시장규모는 약 36조 2,01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3.5%증가했으나 명목 GDP 비중은 2007년과 거의 비슷한 3.41%임
- 한국의 GDP 대비 사교육 규모²⁾는 2005년 기준 미국(2.4%), 일본(1.5%)보다 높은 3.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내 사교육 시장 추정규모 >

구 분	2010년				2007년
	①월평균 사교육비	②전국 학생 수	③사교육 참여율	④시장규모 (① X 12 월 X ② X ③)	시장규모
유아	385,000원	1,013,861명	90.3%	4조 2,297억 원	4조 1,866억 원
초등학생	336,000원	3,474,395명	98.1%	13조 7,426억 원	13조 6,413억 원
중학생	448,000원	2,006,972명	96.9%	10조 4,550억 원	8조 5,991억 원
고등학생	546,000원	1,965,792명	93.2%	12조 40억 원	7조 698억 원
시장 규모				40조 4,313억 원	33조 4,968억 원
				36조 2,016억 원	29조 3,102억 원
GDP 대비				3.80%	3.95%
				3.41%	3.46%

주 1: 초중고생 수는 '09년 말 기준(교육통계서비스), 유아는 '09년 말 전국 6~7세 아동 추계치(통계청)

2: 명목 GDP는 '09년 1,063조 591억 원 적용, 통계청.

3: 월평균 사교육비는 p7. <1인당 월 사교육비 현황>을, 사교육 참여율은 p4. <사교육 참여율>을 참조

- (지하경제 추정규모) 사교육으로 인해 형성되는 지하경제의 추정규모는 약 15조 507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3% 증가하는데 그침(명목GDP의 1.42%)

- 유아 제외 시, 최대 약 13조 5,289억 원으로 추정(명목GDP의 1.27%)
- 2007년 대비 사교육 시장 규모 증가율에 비해 지하 경제규모 증가율이 낮은 것은 사교육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2) Eurostat, *Expenditure on educational institutions*, Eurostat Year Book 2009.

-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로 사교육으로 인한 지하경제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 추정 규모 >

구 분	2010년			2007년	
	④ 시장규모	⑤ 현금 지급률	⑥ 영수증 미 수령율	지하경제 규모 (④ X ⑤ X ⑥)	지하경제규모
유아	4조 2,297억 원	61.4%	55.6%	1조 5,219억 원	1조 5,394억 원
초등학생	13조 7,456억 원	53.0%	66.4%	4조 8,362억 원	6조 3,908억 원
중학생	10조 4,550억 원	54.2%	65.7%	3조 7,229억 원	3조 5,733억 원
고등학생	12조 40억 원	55.2%	75.0%	4조 9,696억 원	3조 2,109억 원
시장 규모	전체	40조 4,313억 원		15조 507억 원	14조 7,144억 원
	유아제외	36조 2,016억 원		13조 5,289억 원	13조 1,750억 원
GDP 대비	전체	3.80%		1.42%	1.74%
	유아제외	3.41%		1.27%	1.55%

주 1: 명목 GDP는 2009년 1,063조 591억 원 적용, 통계청.

주 2: 현금지급률은 p8. <국내 사교육비 지불방법과 영수증 수령여부> 참조

3. '방과후학교'의 참여 실태 및 사교육 대체 가능성

○ 참여 실태 :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방과후학교' 도입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하위 소득층에서 도입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참여율) 2004년 도입되어 6년차를 맞는 '방과후학교'는 참여율이 43.2%로 제도 도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나, 학교별로 차이가 존재함

- 고등학생의 참여율은 55.5%로 가장 높은 반면, 중학생은 30.0%에 불과함
- 교과프로그램의 경우 고등학생의 참여율이 51.5%로 가장 높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들이 34.4%로 가장 높았음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49.2%로 상위 소득가구보다 높았고, 특히 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10%p 정도 높았음

< '방과후학교' 참여율 >

구 분	전체	재학 학교			연소득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	906명	457명	247명	202명	264명	435명	202명
미참여	56.8%	55.1%	70.0%	44.5%	50.8%	60.0%	57.9%
참여	43.2%	44.9%	30.0%	55.5%	49.2%	40.0%	42.1%
교과 프로그램	22.2%	7.9%	24.7%	51.5%	29.5%	18.2%	20.8%
특기, 적성 프로그램	19.6%	34.4%	5.3%	4.0%	18.9%	20.5%	19.3%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1.3%	2.6%	0.0%	0.0%	0.8%	1.4%	2.0%

- (성적/실력 향상) 40.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반 사교육의 성적 효과(63.6%)와는 23.2%p 격차를 보임
 - 초등학생의 경우, 5점 만점 기준으로 격차가 0.2점 존재했으나, 중학생은 0.6점, 고등학생은 0.5점으로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방과후학교'의 성적/실력 향상효과 >

구 분	전체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방과후	사교육	방과후	사교육	방과후	사교육	방과후	사교육
응답자 수	391명	1,104명	206명	459명	75명	252명	110명	204명
향상	40.4%	63.6%	53.9%	64.5%	22.7%	65.0%	27.3%	57.4%
보통	48.8%	33.9%	40.3%	33.6%	57.3%	33.3%	59.1%	33.3%
향상 안 됨	9.8%	2.5%	5.9%	1.9%	20.0%	1.6%	13.6%	3.9%
평균(5점 만점)	3.3점	3.7점	3.5점	3.7점	3.1점	3.7점	3.1점	3.6점

- (사교육비 절감효과) 55.6%가 긍정적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66.7%에 달했으며, 6,0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감소했다는 의견이 63.5%로 높았음
 - 중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44.7%로 초등학생(53.5%)이나 고등학생(66.7%)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경우, 20%이상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55.5%였고, 가장 많이 감소한 수준은 30%이상(33.3%)이었음

<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 >

구 분	전체	재학학교			연소득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 원	3.6~6천만원	6천만원 ~
응답자 수	277명	155명	47명	75명	92명	120명	63명
증가(사교육비+‘방과후학교’)	35.4%	35.5%	46.8%	28.0%	30.4%	44.2%	27.0%
증가(학원無+‘방과후학교’)	9.0%	11.0%	8.5%	5.3%	13.0%	5.8%	9.5%
감소	55.6%	53.5%	44.7%	66.7%	56.5%	50.0%	63.5%
30% 이상 감소	33.3%	25.6%	14.3%	54.0%	30.8%	27.1%	47.5%
20~30% 감소	22.2%	25.6%	23.8%	16.0%	25.0%	20.3%	17.5%
10~20% 감소	17.6%	15.9%	28.6%	16.0%	19.2%	23.7%	7.5%
10% 감소	26.8%	32.9%	33.3%	14.0%	25.0%	28.8%	27.5%

- (도움 종류) 사교육비 절감(33.7%)이 가장 많았고, 자녀들의 보육시간 감소(19.9%), 미술 등 예체능 향상(15.6%)의 순이었음

- 사교육비 절감에서는 고등학교(35.1%), 초등학교(35.0%)가 높은 반면 중학교가 28.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절감(42.6%)이, 6,0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예체능 향상(25.6%)에 대한 도움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응답함
-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전체 25.8%였으나 중학교(42.7%), 고등학교(41.4%)에서는 40% 수준으로 높았음

< ‘방과후학교’로 인한 도움 항목 >

구 분	전체	재학 학교			연소득		
		초등	중등	고등	~3.6천만 원	3.6~6천만원	6천만원 ~
응답자 수	392명	206명	75명	111명	129명	175명	86명
사교육비 절감	33.7%	35.0%	28.0%	35.1%	42.6%	30.3%	25.6%
줄은 자녀보육시간	19.9%	20.9%	22.7%	16.2%	21.7%	17.1%	23.3%
미술 등 예체능 향상	15.6%	26.7%	2.7%	3.6%	11.6%	13.7%	25.6%
친구교류	5.1%	6.3%	4.0%	3.6%	6.2%	4.6%	4.7%
도움 ×	25.8%	11.2%	42.7%	41.4%	17.8%	34.3%	20.9%

사교육 시장의 연장과 대책

○ 사교육 대체 가능성 : 일반 사교육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열등제로 인식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사교육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사교육과의 관계) 사교육의 대체수단(38.9%)보다는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보는 관점(61.1%)이 높음
 -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보는 관점은 3,600만 원 이하 가구(55.4%)보다 3,6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높음

< 사교육 대체 가능성과 투자 효과 >

구 분	전 체	지역			연소득		
		서울/신도시	6대광역시	9개도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	612명	158명	180명	274명	193명	282명	135명
대체 가능하다	38.9%	42.4%	35.0%	39.4%	44.6%	34.4%	40.0%
또 다른 사교육이다	61.1%	57.6%	65.0%	60.6%	55.4%	65.6%	60.0%

- (그룹과의 인식여부) 응답자의 71.9%가 '방과후학교'를 그룹과외로 인식하지 않아 사교육의 경쟁제보다는 열등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의 대체재로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그룹과외로 인식되는 경향이 적어 열등제로 판단됨
 - 3,600만 원 이하 가구보다 3,6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과외로 인식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 이유로는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39.7%)', '학교에서 가르쳐서(30.8%)였음

< 그룹과외로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 >

구 분	전 체	지역			연소득			
		서울/신도시	6대/광역시	9개도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	623명	160명	184명	279명	199명	287명	135명	
과외로 인식 않음	71.9%	77.5%	67.4%	71.7%	66.8%	75.3%	72.6%	
과외가 아닌 이유	응답자 수	448명	124명	124명	200명	133명	216명	98명
	수강생이 많아서	39.7%	31.5%	42.7%	43.0%	38.3%	43.1%	33.7%
	학교에서 가르쳐서	30.8%	31.5%	29.8%	31.0%	31.6%	29.2%	33.7%
	비용이 너무 적어서	10.9%	6.5%	16.1%	13.5%	15.8%	8.3%	10.2%
	기타	18.5%	30.6%	11.3%	12.5%	14.3%	19.4%	22.4%

- (투자 효과) '방과후학교'(13.4%)보다는 사교육(86.6%)에 대한 믿음이 지배적임
 - 비용 대비 성적향상에서 사교육이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높았음
 - '방과후학교'의 성적향상효과에 대한 의심이 학부모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투자비용 대비 성적향상 효과 >

구 분	전 체	지역			연소득		
		서울/신도시	6대광역시	9개도	~3.6천만원	3.6~6천만원	6천만원~
응답자 수	597명	154명	168명	275명	187명	279명	129명
'방과후학교'	13.4%	14.3%	14.9%	12.0%	17.1%	10.0%	14.7%
사교육	86.6%	85.7%	85.1%	88.0%	82.9%	90.0%	85.3%

4. 정책적 시사점

- 정부는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정책들의 효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선 공교육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본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사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로 60.9%가 '정부의 입시 정책', '학교 교육 부실' 등 공교육 정책에 대한 불안을 들고 있는 만큼 공교육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우수한 교사를 육성하고, 인센티브 도입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함
 -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기반을 꾸준히 확충해야 함
- 다음으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도록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입 6년째를 맞는 '방과후학교'는 실시 학교(99.9%) 대비 참여율이 43.2%로 제도에는 진입했으나 사교육의 대표 상징인 그룹 과외인식은 낮은 열등재임
 - 프로그램 내용, 운영방식, 강사진 등에서 품질을 강화해 사교육의 열등재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첫째, (교육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임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55.6%에 이르는 반면에 중고교의 성적향상의 경우 사교육과 30.1~42.3%p 이상의 격차가 존재
 - 성적 향상효과가 높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주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같이 중고교도 교육의 맞춤형 경쟁력 확보가 요구됨

- 둘째, (운영방식)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기존의 대규모 수강에서 소규모 그룹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방과후학교'를 또 다른 사교육으로 보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룹과외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강생이 많아서임
 - 소규모 그룹 단위로 운영을 전환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기존 사교육의 그룹과외나 일반 사설학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셋째, (교원 정책) 현직교사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 외부강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는 현직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의 성적향상 효과가 낮은 것은 저렴한 수강료로 인한 현직교사들의 동기부여 부족을 들 수 있음

- 넷째, (홍보) 자녀들의 성적향상 등 학부모 대상의 '방과후학교'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원인 중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바,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공교육 불신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교과에 대한 사교육보다는 예체능 등 특기·적성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큰 바,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이철선 연구위원 (2072-6242, cslee@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6	2007	2008 ^P	2009 ^P				연간	2010 ^E	
					1/4	2/4	3/4	4/4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5.2	5.1	2.3	-4.3	-2.2	1.0	6.0	0.2	4.5	
	최종소비지출 (%)	5.1	5.1	2.0	-2.0	0.7	1.7	4.7	1.3	3.5	
	민간소비 (%)	4.7	5.1	1.3	-4.4	-1.0	0.7	5.8	0.2	3.3	
	총고정자본형성 (%)	3.4	4.2	-1.9	-7.4	-2.3	0.4	7.1	-0.2	4.9	
	건설투자 (%)	0.5	1.4	-2.8	2.8	5.1	4.4	5.0	4.4	3.2	
	설비투자 (%)	8.2	9.3	-1.0	-23.1	-17.3	-7.0	13.3	-9.1	9.5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	54	59	-64	86	132	103	101	421	180	
	통관기준	무역수지 (억 \$)	161	146	-133	30	170	102	124	426	261.6
		수출 (억 \$)	3,255	3,715	4,220	744	907	950	1,046	3,646	4,120.4
		증감률 (%)	(14.4)	(14.1)	(13.6)	(-25.2)	(-20.8)	(-17.4)	(12.3)	(-13.6)	(12.9)
		수입 (억 \$)	3,094	3,568	4,353	714	737	848	921	3,221	3,855.2
증감률 (%)	(18.4)	(15.3)	(22.0)	(-32.7)	(-35.8)	(-31.0)	(0.7)	(-26.0)	(19.7)		
소비자물가 상승률 (%)		2.2	2.5	4.7	3.9	2.8	2.0	2.3	2.8	3.1	
실업률 (%)		3.5	3.2	3.0	3.8	3.8	3.6	3.6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배럴)		62	68	94	44	59	68	75	62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956	929	1,103	1,418	1,286	1,239	1,176	1,280	1,110	

주: 1) P(Preliminary)는 잠정실적치, E(Expectation)는 전망치

2) 국민계정 2008년 및 2009년 수치는 2010. 3. 26. 한은 보도자료 결과를 반영.